

한국문학도서관 구축한 윤석산 교수



「다들요, 학계와 출판사의 공존이 아니라, 학계의 출판사, 독자, 시인, 시인, 시인의 문헌사적 인프라 일변지」

윤석산(59) 교수는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다. 시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등단한 '시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시 전문지인 계간문에 <다층多層>을 창간해 2002년 중반까지 운영과 편집을 도맡았고 2001년부터는 <한일 시인대회> 공동 의장 역도 맡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지만 사비로 건립한 한국문학도서관도 19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좋아하는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한국문학도서관은 '모든 문인에게 무한한 발표의 자유'와 '독자에게 골라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출판사에게 판매와 홍보의 무대'를 마련하며 '후손들에게는 오늘의 문학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이념으로 설립됐다. 저자로부터 전송권을 확보한 문학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약 1만 2,000권이 입력돼 있다. 약 1만 명의 문인과 문학연구자들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윤 교수와 한국문학도서관을 후원하고 있다.

"지방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며 추천해주어도 구할 수 없어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문에 학위논문 쓰는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서울에 올라와 여러 도서관을 헤매며 책을 복사할 정도였습니다. 대학도서관측에서는 예산도 없거니와 공간이 부족해 책을 구비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안쓰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 사실을 학계와 문단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오늘날의 한국문학도서관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평탄한 작업이 아니었다. 모든 자료를 전자화하는 탓에 통신망 속도도 고려해야 했고 전자책에 반대하는 출판사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DB간의 불안정한 연동 시스템과 직원들의 월급문제까지 겹쳐 고민을 거듭 날이 없었지만 겉으로는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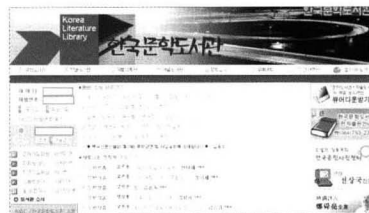
돼간다'며 웃어보였다. 물론 종이책보다 눈이 쉬 피로해지고 외부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르는 전자책이지만 그는 "영구 보존이 가능하고 입력과 전파가 빠른 강점을 가져 향후 20년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종이책처럼 넘길 수 있고 음악과 동영상, 사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자책의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해외의 여러 대학들과도 자료교환협정을 추진중인데 현재 일차 제공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미국 UCLA의 '동아시아 도서관', 하와이 대학의 '한국학 센터',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의 '아시아학 연구소', 영국 런던 대학의 'SOAS',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과 본 대학 등이다. 금년부터는 학술교류 약정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협력대학에 한정해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전송권이 해결된 어문학 자료만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우리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문학 센터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게다가 올해는 '한국 시문학 도서관 완성의 해'다. 이는 그동안 한국문학도서관이 전송권을 확보한 1만6,000명의 문인들의 작품과 '시문학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던 한양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입력시켜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대학들과 협력약정이 체결되면 시문학 분야뿐 아니라 전 장르의 완성을 위한 첫 해로 삼을 것입니다. 아직 전송권을 확보해야 하는 작고 문인과 수천 명의 문인들이 있지만 도서관과 120여 개 문학단체·학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자료들은 지적재산권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도서관이 완성되면 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환원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우리나라 문학 콘텐츠 전량을 수집하고 배분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측은 한국문학도서관을 통해 신간을 홍보하고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출판사가 저자로부터 전송권을 위임받은 신간을 허용하면 출판사에 30퍼센트, 저자에게는 10퍼센트가 배당되고 영세 출판사에는 홈페이지도 마련해 준다. 윤 교수는 "한국문학도서관은 문인과 독자뿐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출판사들을 위한 곳"이라며 "모두가 공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취재 홍이현 기자



한국문학도서관 홈페이지(www.kll.co.kr)에 무료가입하면 무한용량의 홈페이지와 메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